



지오투어리즘
국내 지오투어리즘
사례연구-1

SWOT 분석

- ◆ 지형·지질자원에 대한 전문 가이드 해설 제공
- ◆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
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
- ◆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
 - 대학 주도형
- ◆ 호야 지리박물관 지오투어리즘
 - 개인 전문가형
- ◆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
 - 지역 주민 참여형

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

◆ 강점

- 세계 지오파크 선정
 - ◆ 세계 유일, 유네스코 인증 “트리플 크라운” 달성
 - ◆ 지오파크, 특별한 행위 제한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주민 거부감, 적극적 참여 활동
- 관광 인프라 구축
 - ◆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, 기존 탐방안내소(7개소) 등 적극 활용
- 자연유산 해설가 양성
 - ◆ 국내 최초 양성, 전문 가이드 양성

◆ 약점

- 지오파크의 가이드 투어활동 부족
 - ◆ 총9개소 중 2개소만 전문 가이드 해설
-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부족
 - ◆ 전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전문가 부족
- 지형·지질 관련 교육예산 감축
 - ◆ 자연유산 해설사와 가이드 교육 예산 부족

◆ 기회

- 세계자연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 증가
 - ◆ 지오파크 지정 이후, 국내외 관광객 증가 기대
- 국가 지오파크 운영을 규정한 자연공원법 개정
 - ◆ 자연공원에 지오파크 포함, 지오파크의 관리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가능
 - ◆ 해설사 선발 및 양성 지원 가능

◆ 위협

- 세계 7대자연경관에 밀려 지오파크 후속 사업 추진 미비
 - ◆ 세계 7대 경관 선정 홍보 대비 지오파크 후속사업 예산 투자 미비
 - ◆ 세계지오파크, 엄격한 인증 후 평가, 개선 권고 및 지오파크 네트워크 삭제 등 조치 가능

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

◆ 대학 주도형 지오투어리즘

- 강원도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 → 전역이 접경지역
- 70여개의 지오사이트 선정 → 검은내길, 우뭇바위길, 모래뭇길 프로그램 운영
- 검은내길: 직탕폭포-순담계곡-고석정-대교천 현무암 협곡 사이트







◆ 강점

- 지형·지질 관련 대학에서 지오사이트 개발,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
 - ◆ 지형·지질 전공인력 활용, 지오투어리즘 스토리텔링 구성
 - ◆ 정부지원 지오파크 조성 사업비 이용, 지역주민 교육 및 전문 가이드 해설가 양성
- 전문 관광업체의 지오투어리즘 운영
 - ◆ 해설→전문가이드, 상품운영→관광업체 담당

◆ 약점

-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부재
 - ◆ 현장 실습의 중요성 대비 미흡한 교육 내용
 - ◆ 지형·지질 비전공자를 위한 지속적 보수 교육
-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지연
 - ◆ 접경지역으로서 제약

◆ 기회

- DMZ관광의 새로운 관광 유형 비전 제시
 - ◆ 기존 DMZ관광: 안보관광, 국민의 반공의식 고취, 국민 안보교육(전적비, 전적지, 전시관, 교육관, 땅굴 등 대상으로 진행)
 - ◆ 단조로운 DMZ관광에서 탈피, 새로운 활력 기대
- DMZ에 대한 적극적 개발
 - ◆ 정부 및 지자체, 학계, 민간단체
 - ◆ 생태관광벨트,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
 - ◆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: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
 - ◆ “대한민국의 배꼽”: 양구, 지리박물관 건립

◆ 위협

-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교육 사후관리 대책
 - ◆ 기존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수 교육, 신규 지오투어리즘 가이드 양성 교육
 - ◆ 기존 해설가 대상의 지속적 보수교육 필요
- 접경지역의 관광 인프라 부족
 - ◆ 접경지역 지원사업
 - ◆ 정체된 접경지역의 낙후화 개선 곤란
 - ◆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관광인프라 구축